



## 2023 강원도립대학교 JOB FESTIVAL 개최

강원도립대 JOB FESTIVAL(취업 박람회)'이 2023년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양 쏠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40여 개의 현장 채용기업이 참여하였다. JOB FESTIVAL은 만 19세~39세의 강원지역 지역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이력서 및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이 행사를 통하여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 및 직종 비교를 통한 개인에게 맞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강원도립대학교의 취·창업정보센터와 일자리

센터에서 주관한 JOB FESTIVAL은 현장 컨설팅과 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하고자 하였으며, 소노호텔앤리조트, 설해원, 스카이베이호텔 외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또한 관광, 건설 및 제조, 경호,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소개하였다. 기업 소개와 함께 현장 채용과 면접도 진행하였는데, 기업의 현장 채용 및 면접, 이력서용 사진 촬영, 면접 및 채용 상담(1:1 코칭)도 진행하였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메이크업, 면접 정장 대여 등을 하였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김광래 총장님과 김학철 강원지역 혁신플랫폼 총괄 운영 센터장, 조영호 양양 부군수 등이 행사장을 찾아 청년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광래 총장님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 발굴을 도와 기업의 구인 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도 계속 JOB FESTIVAL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학철 센터장은 “JOB FESTIVAL을 통해 구직자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취업 정보와 일자리가 제공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조영호 부군수는 “지역 인재 발굴을 통해 도내 기업의 구인 수요가 총족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JOB FESTIVAL은 진행함으로써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기업 홍보와 더불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지역 학생을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에 인구가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올해 JOB FESTIVAL과 같은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강원도립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미래와 취업에 도움을 주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 지면안내

1면 강원도립대학교  
JOB FESTIVAL 개최

2면 산불피해 성금 전달 및 피해 복구  
봉사활동 / 학과소식 / 총장취임식

3면 학생회 / 체육부소식 / 산업협력단  
/ 학생상담센터 / 기숙사

4면 추천영화 / 이슈 / 추천맛집 / 축제  
/ 문화주요뉴스 / 지역소식

## 봉사활동 - 강릉산불 피해복구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는 2023년 5월 8일(월)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성금 360여만 원을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강원도립대학교 이재교 총학생회장과 부회장도 함께했다. 강원도립대 학생들은 지난 4월 18 일(화)에 이재민 임시대피소인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방문해 커피와 빵 무료나눔 하는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5 월 12일(금)엔 직접 현장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였다 김광래 총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

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립대학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LINC 3.0) 사업단 에코방재 기업협약센터(ICC)는 5월 12일 강릉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강원도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유한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단 안전기업협약센터(ICC)와 함께, 각 대학 관계자 및 학생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산불 피해 지역 일원에서 피해지역 현장 정리 및 환경 정화 등 강릉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힘썼다. 피해복구 작업에 앞서 재해 복구 자원봉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업복,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하며 봉사활동을 이어 나갔다. 강원도립대와 유한대의 학생자원봉사단은 산불 피해 수목과 잔해물 제거와 같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광래 총장은 “모두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산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협력 강화, 타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육성사업(LINC 3.0) 사업단과의 공유·협업을 강화하여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해인 편집국장

## 학과소식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강릉커피협회, 강릉시제과협회의 자원봉사에 이어 릴레이로 참여한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직접 만든 빵과 따뜻한 커피 500여잔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위로를 전했다. 김광래 총장은 “이번 산불 피해가 막대한 만큼 강릉 지역에 유

일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용 선원노련위원장과 관계자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전달식 후 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학생 3명에 대한 선원연합노조위원장의 현장면접도 진행되었다. 선원노련은 우리나라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다. 1946년 해상노동연맹으로 처음 설립된 이후, 선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 2021년부터 강원도립대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김도현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 취임식



강원도립대학교는 17일 오후 3시,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제11대 총장 김광래 박사의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회의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광래 총장은 관동대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석사,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고 대통령 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소 사무처장,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장,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광래 총장님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작지만, 취업에 강한 대학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학생,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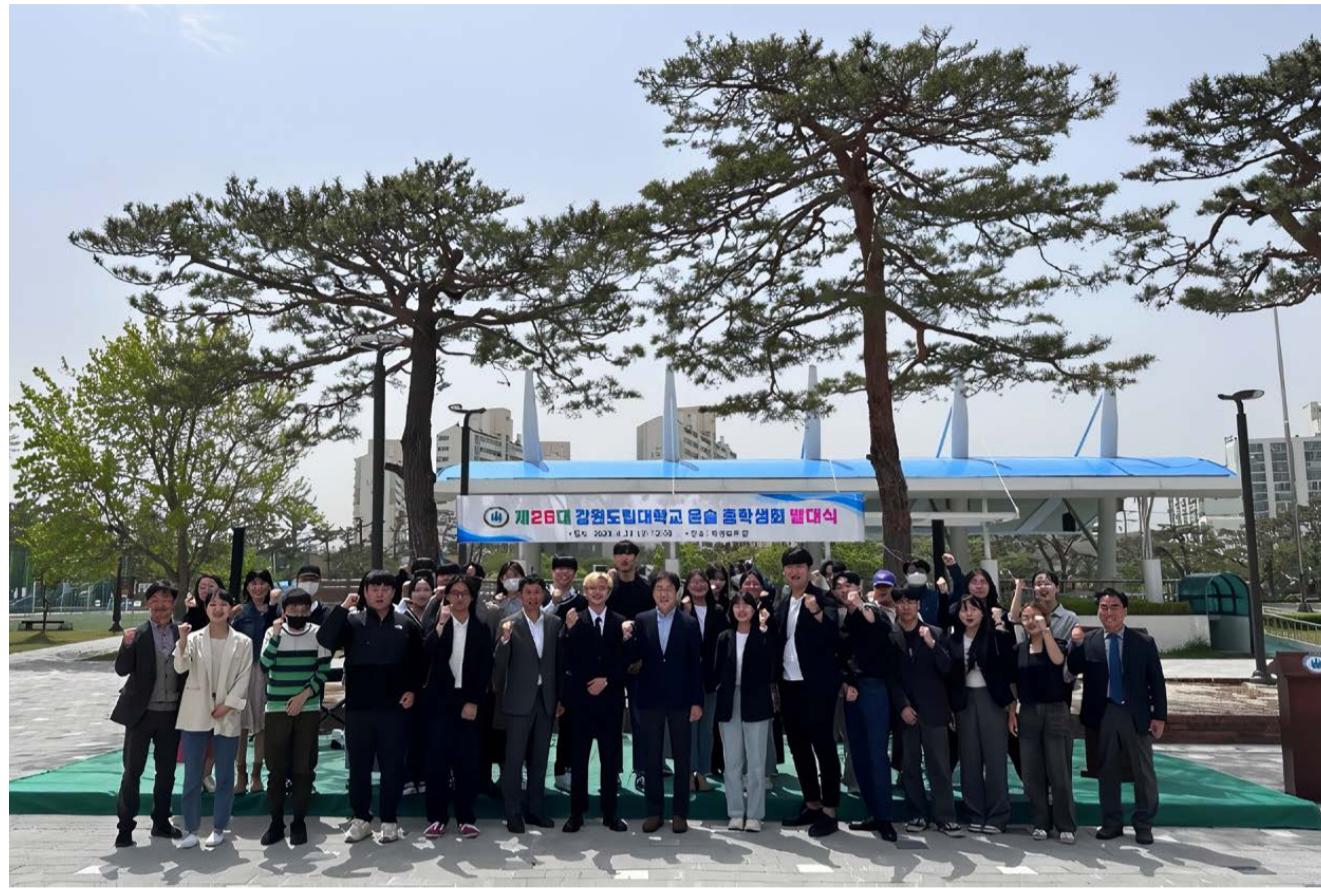
김수련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미래인재  
더 특별해진 강원도립대학교 가 키웁니다.**

SINCE 1998, 강원도 유일 지역거점 공립대학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 학생회 발대식 개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는 2023년 4월 21일(금) 오후 12시, 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제26대 윤슬 총학생회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래 총장을 비롯해 총학생회 임원, 재학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고 총학생회장은 이번 총학생회의 명칭인 “윤슬”的 의미를 설명하며, 제26대 총학생회가 “빛나는 슬로건 아래, 재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잔물결로

써 대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큰 파도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와 김광래 총장은 2023년 7월 본교 청운관으로 이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지역본부와 관련하여, 학교와 특별자치도가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광래 총장님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

운 지금 이 순간을 앞에 주어진 일들에 몰입하고, 집중하여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며, “생동감 있는 대학 캠퍼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기획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기를 기원하다”고 밝혔다.

전의종 기자

## 산학협력단 공유·협업 워크숍



4월 20일~21일 양일간 속초 일원에서 링크 3.0(단장 박병수)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최근표) 참여대학과 1차년도 성과, 2차년도 사업계획 공유 및 기업협업센터(ICC) 특화분야 연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뿐만 아니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권역별 특화분야 산합협력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우수 성과 공유를 통해 산학협력 기반 강화, 공유·협업 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도현 기자

## 학생생활관 RC(Residential College) 아우룸



3월 13일(월) 오후 2시, RC 개소식과 함께 아우룸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아우룸은 인성 및 기초소양과 같은 역량을 기르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통해 기숙형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학생 생활관에 자리 잡은 ‘RC 아우룸’은 뮤직룸, 쿠킹룸, 아뜰리에(공방) 등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RC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공간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전해인 편집국장

## 학과소식



**우수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수부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일간 열린 「제35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52kg, 65kg, 70kg 각각 경기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도립대학교 레저스포츠과 정재식(52kg 1위), 황규민(65kg 1위), 최규민(70kg 1위) 학생이 모두 1위를 수상함으로써 우수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대학의 위

김도현 기자



**체육대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는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9시에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2023년도 체육대회는 26대 총학생회(윤슬)이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참가한 학과는 소방환경방재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외 6개의 학과가 모여서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개회식, 피구, 풋살 준결승, 줄다리기, 미니게임 풋살결승, 장애물 계주 예선 및 결승, 경품추첨,

폐회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1등은 레저스포츠과며, 상금은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이었다. 체육대회는 강원도립대학교 재학생들의 단합과 체력증진,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재학생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즐기고 협동하고 친해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전의종 기자

## 학생상담 센터

그림이 마음에게 지난 4월 26일 (수)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1타임 13:30~15:30, 2타임 15:30~17:30 그림이 마음에게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정금희 강사는 “그림이 그림으로써 주는 위로와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수련 기자

## 추천 영화 Movie

##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 2023.03.08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애니메이션  
국가: 일본  
러닝타임: 122분  
배급: (주)쇼박스  
박스오피스 순위: 6위  
1회 브뤼셀 패타스틱 영화제  
(은까마귀상)  
46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음악상)

## 이슈 Issue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전에는 '연 나이', '만 나이'를 혼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된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의종 기자

## 문화 주요 뉴스 Culture



에스파는 한 유명 주얼리 브랜드 공식 엠버서더로 제76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다. 특히 칸 영화제 창립 이후 케이팝 그룹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최초다. 이에 따라 에스파의 레드카펫 등장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수련 기자

## 추천 맛집 Restaurant



개봉: 2023.05.03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액션, 모험, SF  
국가: 미국  
러닝타임: 150분  
배급: 월트 디즈니

김도현 기자

## 안목회관

위치: 강원 강릉시 경강로 2627-1  
점심: 11:30 - 3:00  
브레이크 타임: 3:00 - 5:00  
저녁: 5:00 - 12:00



## 메밀골동해막국수

위치: 강원 강릉시 창해로 350번길 25 1층  
운영시간: 10:00 - 21:00  
브레이크타임: 16:00 - 17:00

## 지역 소식 Local



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중의 하나이자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강릉 제2청사'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제2청사 글로벌관(강원도립대학교 소재)에서 제2청사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강원도 의회 의장을 비

롯해 김홍규 강릉 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2청사는 그동안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해 7월 민선 8기 도정 공약으로 채택돼 급물살을 탔던 서 더욱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이후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지난 3월까지 기능과 규모, 역할 등에 대한

검토와 행정 안전부 협의를 마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기에 출범하게 됐다. 전체 조직은 1본부장, 3국 (미래 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1기획관 (총괄), 4사업소(DMZ박물관, 수산자원 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87명 규모다. 청사는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 건물과 구 활동해본부 건물을 사용하며 각각 '글로벌관'과 '활동해관'으로 명칭을 정했다. 초대 글로벌본부장은 강릉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정일섭 도 행정국장을 임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2청사는 도청의 핵심 기능이 다 들어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담겨 있으며 더 나아가 동해안권 발전에 힘써줄 유능한 직원들이 제2청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관한 강릉북부수영장(강원도립대 내 위치)이 주문진 등 북부권 지역주민,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강릉·초중고 생존 수영·여가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릉북부수영장은 강원도립대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국·도비 포함하여 79억 원을 들여 조성한 지하 1층 ~ 지상 1층 규모의 수영장이다. 강원도립대학교는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캠퍼스 곳곳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김광래 총장은 "강원도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이 기반해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에 더욱 힘쓰고 수영장 이용자의 지속적인 급증에 대비, 도립대 후문 도로 확장도 강릉시와 함께 계획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김수련 기자

## 지역 축제 Festival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전통을 가진 축제이다. 2023 강릉 단오제는 단오, 보우하사라는 주제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열린다. 단오제는 전통 문화 정수인 제례와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굿판,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먹거리 포함)이 펼쳐지고, 국가 지정 문화재 행사와 시민 참여 행사 및 민속놀이 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김수련 기자

## 가로세로퀴즈 Crossword Quiz

				1		
2				3		
4			5			
		6			7	
	8				9	
10						

## 가로문제

- '걸웃'과 같은 말
- '고조할아버지'와 같은 말
- 사물의 수량이나 부피 따위가 매우 급하게 팽창함. 또는 그런 팽창
-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사기》의 에 나오는 말이다
- '장군'(將軍)과 같은 말
- 털의 끝
- 절을 세울 터. 또는 절이 있었던 터

## 세로문제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특별한 계급이나 등급
- 창조하는 성질. 또는 창조적인 특성
- 개의 털
- 장이 서는 터



## 기자명단 총 4명

편집국장 : 전해인(해양경찰과 2년)  
기자 : 김도현(소방환경방재과 2년), 김수련 (해양경찰과 2년), 전의종(해양경찰과 2년)